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 성경: 시편 12편 1-8절

Tag:

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5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7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12:1-8)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수수방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굽어 보시고, 그 행위와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태도를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신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교만하고, 영접결에 거짓말까지 하시는 것도 아신다. 그러나 교만할 때 그 마음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뜨거운 사람은 복있는 사람이다. 아직 그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교만하고 그 교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

르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의 장점으로 삼거나 무기로 삼는자가 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거짓말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너무 부끄러울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할 때, 속상할 때, 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모면할 때가 있다. 그때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코끝이 간지럽고, 뒷머리가 가렵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개하다 보면 어떤 때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 곁에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 거짓말은 나를 지키는 천사의 힘을 뺏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천사가 힘을 잃는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당당하게 돕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 입술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 어지나이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당시를 상상해 볼 때 사무엘상 22장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다윗은 당시 사울왕으로부터 급하게 도망하다가 허기가 저서 눕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된다.

다윗은 짐짓 사울왕이 암행어사를 행케 하시므로 병사들을 약속 장소에 집결케 하였기에 내가 홀로 여기 왔소이다. 급히 오느라 떡을 챙기지 못했는데, 내가 허기저서 죽게 되었으니 떡을 주시오. 칼이 있으면 주시오 했다.

아마도 아히멜렉이 사정을 짐작했을 터인데 다윗이 달라는대로 주었

다.

그 때 사울의 목자장 에돔사람 도역이 그 행사를 보고 사울왕에게 고자질 하였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온 집안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들 아비아달만 간신히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고하게 된다.

사울의 모든 신하가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못하는 데 도역만은 악한짓을 도맡아 하게 된다.

사울의 신하들도 진실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첨하며 두 마음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분명히 신하들 중에는 다윗을 잘 알고 다윗 편을 들 수 있는 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약속했던 돈도, 결혼도, 존귀함도 얻지 못했다. 단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인정을 받고 용맹하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울왕의 약속을 다 알고 있었지만, 다윗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직 다윗 편에는 억울함을 당한자, 가난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들었다.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망하도록 하였고, 다윗편에 속한 사람들은 흥하게 하셨다.

3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같은 사건이지만 사상과 가치관에 따라 그 해석은 정반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론과 생각이 정의롭다고 믿는다. 그들은 목적이 참으로 정의로우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필요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이니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정말 큰 목소리로 외쳐댄다. (북한 사람들은 항상 그래왔다. 이게 요즘 트렌드가 되어서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외치고, 이슬람 난민들도 종교적 이유 때문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인간에게 인권이 있지만, 죄를 범하는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먼저다.)

5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하나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경건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자들의 부르짖음을 드르신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며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모압으로 건너가서 식구들을 피신 시켰다. 그러나 다윗에게 선지자 잭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은 네가 이곳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빨리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라 하셨다.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하여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의 남쪽 지경으로 갔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요, 여전히 남쪽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아직 왕도 아니요,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자였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왕이 해야 마땅한 치안유지를 감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혀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진리를 구해야 한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 영적 전쟁을 쉬지 말아야 한다.

6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진실됨)이 마치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일곱 번은 완전함을 의미한다.

7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

8절 말씀은 쇠구와 같은 말씀인데 당시의 사회상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개역 개정판이 더 리얼한 번역이다.

8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하다;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

이제 이런 일들이 처처에 미친 듯이 벌어질 것인데, 경건한 자들은 그 죄악에 현혹되거나, 물들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 힘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